

광주·전남 1인 가구 53만 넘었다...취업 비중 전국 평균 상회

지난해 광주 23만5천·전남 29만7천 가구
취업 비중 64.3%·66.2%...전국 63.7%
전남 맞벌이 가구 58.1% 17개 시도 2위

광주·전남지역 1인 가구가 1년 사이 3만 이상
늘어 53만 가구를 넘어섰다.
전남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%를 기록, 17개 시
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9일 통계청이 발표한 '2024년 하반기 지역별
고용조사 맞벌이 가구·1인 가구 취업 현황'에 따
르면 지난해 광주·전남지역 1인 가구는 각각 23
만5천 가구, 29만7천 가구로 총 53만2천 가구로
조사됐다.

광주는 전년보다 1만6천 가구(7.8%), 전남은 1
만8천 가구(6.5%) 증가한 수치다.
광주 1인 가구는 지난 2022년 21만8천 가구, 202
3년 21만8천 가구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.
1인 가구 취업 비중은 64.3%로 전년(61.9%)대

비 2.4%p(포인트) 높아졌다. 전국 1인 가구 취업
비중 평균은 63.7%다.

전남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2022년
27만5천 가구에서 2023년 27만9천 가구로 증가하
고 있다.

1인 가구 취업 비중은 66.2%(19만7천가구)로 1
년전(66.5%)보다 0.3%p 하락했다.
광주·전남의 맞벌이 가구 비중도 높은 것으로
나타났다.
지난해 광주 맞벌이 가구는 17만3천 가구, 맞

벌이 비중은 48.7%로 전년보다는 0.2%p 하락했
으나 서울을 뺀 7개 특·광역시 가운데서는 세종
시(67.1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.

전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는 27만7천 가구로 맞
벌이 비중은 58.1%로 전년과 비교하면 0.2%p 상
승했다.

특히 전남의 맞벌이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
운데 제주(62.2%) 다음으로 높았다.

한편 전국의 1인 가구는 800만3천 가구로 1년
전보다 61만6천 가구 늘었다. 이중 취업 가구는 5

10만 가구였으며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.7%
로 증가했다. 1인 취업 가구의 평균 주당 취업 시
간은 38.2시간으로 0.3시간 줄었고 성별로는 남성
40.6시간, 여성 35.2시간이었다.

임금수준 별로는 200만~300만원 미만이 31.9%
로 가장 많았고 300만~400만원 미만(25.3%), 400
만원 이상(22.1%)이 뒤를 이었다. 전년과 비교하
면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.1%p 늘고, 20
0만~300만원 미만은 2.1%p 줄었다.

/안태호기자



농협유통, '남고 흥매실' 선배 농협유통이 여름에만 반짝 판매하는 '남고 흥매실'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. 모델들이 남고 흥매실을 소개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광주은행, 지역 창업·중소 금융지원 확대

광주시 중점산업 업무협약...지역경제 활성화·일자리 창출 기여

광주은행이 광주시,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
역 중점산업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
확대에 나선다.

광주은행은 19일 "북구 빛고을창업스테이션
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강기정 광주시장, 이
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
한 가운데 광주 지역 내 중점산업을 영위하는
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'광주
시 중점산업 창업·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
무협약'을 체결했다"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은 AI산업, 제조업, 미래차 등 광주
시 중점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실
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·
관·공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

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8억원을 특별출연하
고 협약 대상 기업에 1년간 연 0.5%의 보증료도
함께 지원할 예정이다.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
원으로 총 670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고
광주시는 2년간 연 20%의 이차보전을 지원함
으로써 지역 소재 기업이 보다 나은 금융조건으

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
다.

고병일 광주은행장은 "이번 협약은 금융기관
과 지자체,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에
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
큰 의미가 있다"며 "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창업
자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
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
다하겠다"고 말했다.

/정은솔기자

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% 사용 약속

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

한국에너지공단
광주·전남지역본부

농어촌공 전남본부 '호숫길 쓰담쓰담' 캠페인 전개

수완·도천 저수지서 ESG 경영 실천

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9일 "전남
광주 수완1제,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'행복
한 농어촌,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' 친환경
경 캠페인을 진행했다"고 밝혔다. <사진>

'호숫길 쓰담쓰담'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
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
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들레길을 걸으며 쓰레기
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.

지역본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무더운 날
씨에도 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
경을 꼼꼼히 살피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.



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"작은
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"며 "환경
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의 상
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
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
가겠다"고 말했다.

/안태호기자



광주국세청,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 관람·세정 홍보

광주지방국세청이 모범납세자들을 초청해
프로야구 경기 관람과 세정 홍보 등 뜻깊은 행
사를 진행했다.

1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전남 광주 기
아레나 스포츠필드에서 모범납세자와 지방청 직
원들과 함께 프로야구 시구·시타 및 단체관람
행사를 진행했다.

이날 야구 관람에 앞서 박광종 광주국세청장
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을 갖고 "어려운 경제
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
정에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"고

말했다. <사진>

야구 경기에 앞서 시구 시타를 실시한 농업
회사법인 ㈜제일A&H 오재갑 대표이사와 ㈜
송원기업 오재환 대표이사는 "납세 의무를 다
했음에도 표창과 함께 이런 축제의 장을 만
들어 줘 무한한 명예와 영광"이라고 소감을 밝
혔다.

행사 중에는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
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성실납세 감사
홍보영상과 함께 초청 납세자(2명)를 소개해
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였다. /박은성기자

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

"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"

예술의 고장 광주의 **하나뿐인 예술시장**

대인예술시장

대인예술시장은 2024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문화예술시장의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
상점 서터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문 달은 점포대신 공방이 들어서며,
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잡은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곳은 대인예술시장입니다.

운영시간 및 휴무일 매일, 오전 8:00 ~ 오후 10:00

주최 : **광주매일신문 · 광주매일 TV** 후원 : **광주광역시동구** 광고문의 : 062)650-2099

작가들의 창의성을 결합한 남도달밤야시장은
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야시장을 **토요일에 실시**하며,
다양한 먹거리와, 공연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.